

오뉴월의 서리 내린/한 땀한 위경망의 객기
오빠 개 갈애/돈도 많이 벌여준다 했지만/
맨날 술 먹고 X랄

아찔한 랩가사 우리부부 이야기? 하하, 비밀이죠

16년 만에 정규앨범 '제미나이2'로 돌아온 힙합여제

윤미래

‘힙합 여제’ 윤미래(37)가 돌아왔다. 그동안 드라마 OST와 프로젝트 음반, 그리고 소속된 그룹 MFBTY 활동에 집중해 왔던 그가 오히려 자신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목소리를 냈다. 그의 솔로 정규앨범은 무려 16년 만이다. 남편 타이거 JK와 아들 조단과 함께 사는 재미에 푹 빠져 있던 그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이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보여주자”고 마음 먹었다.

5일 새 정규앨범 ‘제미나이2’를 발표하며 이날 오후 서울 광장동 예스24홀에서 음감회를 연 그는 “수백 번, 수천 번 무대에 섰지만 이렇게 손에 땀이 날 만큼 떨리는 무대는 처음이다. 이런 자리가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앨범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무대에는 남편인 타이거 JK가 함께 올랐다. 그는 윤미래의 앨범 프로듀싱을 맡았다.

새 앨범은 ‘윤미래’라는 부제를 붙여도 무방할 정도다. 그만큼 윤미래의 모든 것이 담겼다. 그는 부드러운면서도 강하다. 평상시에는 사랑스러운 미소와 나긋한 말투로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다가 하면 ‘일’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 강하다. 이렇듯 새 앨범에서 내조, 육아, 위경망 등 자신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노래했다.

첫 곡 ‘랩 퀸’부터 강렬하다. ‘새로운 시작, 위경망의 객기/오뉴월의 서리 내린/한 땀한 위경망의 객기’라는 랩 가사로 편지를 날린다.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개갈애’는 더 세다. ‘오빠 개 갈애/돈도 많이 벌여준다 했지만/ 맨날 술 먹고 X랄’이라는 랩이 지극히 현실적이다.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가사가 웃기면서도 아찔하다. 타이거JK가 피쳐링을 맡아 현실성을 더했다.

“주위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메인곡 ‘개갈애’ 현실부부 랩 공감
남편 타이거JK 프로듀싱·피쳐링
‘쿠키’에선 아들에 대한 사랑 담아



윤미래 앨범 자켓 컷

의견도 있었다. 엄마도 썩시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노래의 주인공이 오빠(타이거 JK)인지는 이야기 하지 않겠다. 하하! 그동안 ‘부부싸움을 할 때 ‘랩 배틀’을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거기서 영감을 받아 만든 노래다.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내 이야기를 노래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숨기고 다듬어진 모습만 보여주는 게 오히려 더 유치한 것 같았다.”

‘쿠키’라는 곡에서는 아들 조단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또 다른 타이틀곡 ‘유엔 미’로는 남녀간의 우정이 아슬아슬한 감정으로 변하는 미묘함을 노래했다. 동료 가수 더블케이, 주노플로 등이 앨범에 참여해 다양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타이거 JK는 “(윤)미래가 그동안 ‘검은 행복’이나 ‘페모리즈’처럼 인생의 아픔과 고독을 애기한 노래를 많이 선보였다. 이번에는 재밌으면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음악을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이자 아내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미래는 아까운 인재”라며 “한국에도 이런 아티스트

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며 찬사를 대신했다. 이어 “미래가 엄마가 되고 나서 육아를 열심히 했다. 우리가 ‘월드 스퀴’이어서 요즘 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스튜디오 섭외 등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물리적,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남편의 든든한 외조와 사랑스러운 아들이 곁에 있어도 윤미래에게 무대는 절대 떼려야 뗄 수 없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이다. 윤미래는 이를 “영원한 고향이자 천국”이라고 표현했다.

“무대에서 랩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편하다. 천국에 있는 기분이다. 공연할 때 서로 랩을 주고받는 에너지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다. 그 때문에 음악을 하게 되는 것 같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무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타이거 JK와 윤미래. 이들은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라고 외치며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여전히 비주류 음악이었던 힙합을 주류의 마당으로 이끌어냈다. 지금처럼 힙합이 젊은 층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두 사람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신기하고 기분 좋다. 예전에 힙합이라고 하면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행사장에 가면 힙합 가수가 꼭 있다. 인기가 없을 때는 래퍼들이 ‘랩 구다리’라고 무시당해 가장 힘들었다. 무대 시간도 적고, 대기실도 없었던 때를 지나 이제는 많은 관심을 받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가수 윤미래가 16년 만에 새 앨범 ‘제미나이2’를 들고 돌아왔다. 남편 타이거 JK에 대한 이야기, 아들 조단에 대한 사랑, 위경망의 현실 등을 윤미래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사진제공 | 뽀글뮤직



연예뉴스 HOT 5

17세 차이 미나-류필립 웨딩마치

조울증 장근석, 사회복무요원 근무

별밤지기 강타, DJ활동 마무리

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조회수 2위

황정민-김혜수 영화 ‘귀환’ 주연 발탁

가수 미나(46)와 연기자 류필립(29)이 웨딩마치를 올렸다. 17세 연상연하 커플로 주목받은 두 사람은 7일 서울 대치동 한 웨딩홀에서 백년가약을 맺었다. 2015년 교제를 시작한 이들 부부는 상당한 나이 차이로 먼저 주목받았고 이후 류필립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에 함께 방송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결혼식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나는 “나이 차이로 인해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예식을 하니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서 박차오른다”고 밝혔다. 2세 계획에 류필립은 “최소 두 명에서 네 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에 출연하고 있다.

연기자 장근석(31)이 16일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 복무를 시작한다.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이유는 양극성 장애, 즉 조울증 때문이다.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은 2011년 대학병원에서 처음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후 시행된 모든 재신체검사에서 재검 대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입대 연기 요청은 하지 않았고 병무청의 재검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장근석이 양극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후유증을 겪는 등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장근석은 팬카페를 통해 대체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25대 ‘별밤지기’로 활동한 가수 강타가 2년 만에 진행자 자리에서 내려온다. 강타는 8일 MBC 표준FM ‘별이 빛나는 밤에’ 마지막 방송을 끝으로 DJ활동을 마무리했다. 강타는 프로그램 로고송을 직접 부른 것은 물론 따뜻한 감성으로 청취자와 소통해왔다. ‘별밤’에 갖는 애정이 누구보다 각별해 2016년 MBC 방송연예대상 라디오 부문 신인상을 받기도 했다. 강타는 “‘별밤’에서의 2년은 정말 소중하고 잊지 못할 시간이었다”며 “DJ를 통해 남의 말을 먼저 듣고 다시 생각하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강타는 8월11일 서울 잠실 사뮈터 씨어터에서 시작하는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 출연할 예정이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가 유튜브에서 24시간 안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올린 뮤직비디오 2위에 올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6월15일 공개된 블랙핑크 첫 번째 미니앨범 ‘스퀘어 업’의 타이틀곡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4시간 만에 3천 620만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블랙핑크의 이 같은 기록은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룩 왓 유 메이드 미 두’(4320만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앞서 가수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24시간동안 3600만뷰,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는 3590만뷰를 각각 기록했다. 미국 매체 빌보드는 “블랙핑크가 새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우 황정민과 김혜수가 윤제균 감독의 새 영화 ‘귀환’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황정민과 김혜수가 영화에 함께 출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귀환’의 제작사 JK필름은 “‘귀환’은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샬터-03’을 배경으로 불의의 사고로 홀로 그곳에 남겨진 우주인과 그를 귀환시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SF영화”라며 “황정민과 김혜수는 각각 우주정거장의 전임과 후임 지휘관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국제시장’, ‘해운대’의 윤제균 감독은 ‘귀환’의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부터 황정민과 김혜수를 주인공으로 삼아 캐릭터를 완성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